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의 촉발되나

광주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무죄 선고 주목

광주전남병무청, 3년간 146명 수사기관에 고발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논의가 또다시 촉발될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최근 3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징병 대상자도 146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통상 병역 면제에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럼에도,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특별한 조치(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의무 군복무 제도는 양심·종교·사상 등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지적이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병역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집중 형식의 병역 의무만을 거부하면서 대체복무 형태의 병

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 정도로 군사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힘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광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국제 엠네스티가 13일 발표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최소 613명이 수감중이며,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80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날 대체복무 선택권이 없는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을 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5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행사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지만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집중 형식의 군복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가 1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힘 실어준 시민 덕택에 버텨...억울해 죽을 수도 없어요”

광주고법 항소심 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진술

피고측 변호인 소송 연기 요청 기각...내달 24일 선고

“도와준 시민들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억울함에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1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한 양금덕(84) 할머니 목소리에서는 간절함과 비장함이 묻어났다.

이날 재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변론 기일로, 양 할머니는 선고 전 마지막 의견 진술을 위해 법정에 섰다.

양 할머니는 “당시 강제동원됐던 기록(성적표 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일

이 없다고 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지금 재판까지 하게 된 사실에 감사하다.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 왔다”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었다. 대법

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사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다음 선고를 해달라”는 미쓰비시 측 변호인 요청에 미쓰비시측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유사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재상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항소심 선고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녘 19:28

달 뜨는 시간 02:45  
달 지는 시간 15:08

불청객 '꽃가루'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많았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17/28 | 보성  | 구름많음 | 15/23 |
| 목포 | 구름많음 | 17/24 | 순천  | 구름많음 | 15/24 |
| 여수 | 구름많음 | 16/21 | 영광  | 구름많음 | 17/26 |
| 나주 | 구름많음 | 16/28 | 진도  | 구름많음 | 18/25 |
| 완도 | 구름많음 | 17/24 | 전주  | 구름많음 | 15/29 |
| 구례 | 구름많음 | 14/26 | 군산  | 구름많음 | 15/26 |
| 강진 | 구름많음 | 17/25 | 남원  | 구름많음 | 13/28 |
| 해남 | 구름많음 | 17/25 | 흑산도 | 구름많음 | 15/23 |
| 장성 | 구름많음 | 15/26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1.0~2.0 | 남~남서 0.5~1.5 |
| 남해 앞바다       | 남~남서 1.5~2.5 | 남~남서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남서 1.0~2.0 | 남~남서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남서 1.0~2.5 | 남~남서 1.0~2.0 |

◇ 생활지수

|    |    |
|----|----|
| 수면 | 50 |
| 운동 | 50 |
| 빨래 | 90 |

◇ 주간 날씨

|       |       |       |       |       |       |       |
|-------|-------|-------|-------|-------|-------|-------|
| 15(금) | 16(토) | 17(일) | 18(월) | 19(화) | 20(수) | 21(목) |
|       |       |       |       |       |       |       |
| 18/25 | 14/26 | 12/27 | 13/26 | 15/25 | 13/25 | 14/26 |

##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여부 가리는 법정 진술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감형 포기하고 재심 신청”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여·38)씨는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최창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은 재심(再審)을 청구한 쪽의 사유를 들어본 뒤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기일로, 통상적인 서면 심리가 아닌 김씨가 출석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이날 2시간여 동안 변호인의 질문에 수사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울먹였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씨는 “가석방,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그동안 수사과정의 불법 감금·체포, 가혹행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고지, 약사의 진술에 근거한 사망원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넣고 있으며 수사기록마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면서 재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부 살해 동기와 관련, “성추행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살해 목적으로 거론된 다수의 보험가입과 관련, 김씨는 “보험 모집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재심 청구 사유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Software Asset Management

행사일정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3:30~14:00 | 등 록                          | -            |
| 14:00~14:10 | 환영사                          | -            |
| 14:10~14:40 | 저작권법 설명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 14:40~15:10 |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라이선스 소개와 정책       | 마이크로소프트      |
| 15:10~15:40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모범사례              | 원도군청         |
| 15:40~15:50 | 휴식                           |              |
| 15:50~16:20 | 소프트웨어 단속사례 및 소프트웨어 효율적 관리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
| 16:20~16:50 | 베라핌 소개와 이용 방법                | EY현영 or 딜로이트 |
| 16:50~17:00 | 클로징                          |              |

일 시

장 소

주 최

후 원

참석대상

내 용

참 가 비

신청/문의

• 2015년 5월 20일(수) 13:30 ~ 17:00

•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212호, 213호

• 광주일보사, 브라이언 커뮤니케이션스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산업진흥원

• 기업 및 산학단체 전산담당자, 관련학과 학생 및 교직원, 관심있는 분

•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자산관리 방법교육

• 무료, 기념품제공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010-5156-5596